

독서대전, 전주만의 책의 힘 느꼈다

3일간의 대장정 마무리... 특별한 개막식·북적북적 한 책 잔치·인문사회학강연 등 호응

독서의 달 9월을 맞아 대한민국 대표 인문학도시인 전주에서 열린 최대 규모의 독서문화축제인 '2017 대한민국 독서대전'이 3일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했다.

9월 1일부터 3일까지 전주 경기전 등 전주한옥마을 일대에서 펼쳐진 이번 독서대전은 책의 힘을 느낄 수 있었던 특별한 개막식을 시작으로 축제 기간 내내 출판사와 독자가 함께 어울리는 '북(Book)적 북(Book)적' 한 풍성한 책 잔치와 뜨거웠던 인문·사회학 강연들의 향연이 이어져 이목이 집중됐다.

먼저, 첫날 경기전 내 특설무대에서 진행된 개막식은 그간 의례적으로 치러졌던 경과보고와 축사, 격려사 등을 모두 생략되고,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깜짝 시낭송과 책 읽는 즐거움을 알려준 안도현 시인과의 미니토크, 전북맹아학교 이은호 학생과 김승수 전주시장이 함께한 책 읽어주는 남자 코너 등 전주문화의 힘과 책의 힘을 느끼게 한 특별한 프로그램으로 꾸며졌다.

이를 통해 현장에 참석한 1,000여명의 시민들과 TV를 통해 개막식을 시청한 국민들에게 책이 주는 의미와 왜 책을 읽어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진 특별하고 의미있는 전주만의 개막식을 만들었다.

또한, 이번 독서대전은 출판사와 독자가 함께 어울리는 북적북적 한 책 잔치가 이어졌다. 경기전 출판사 북페어 행사에 참여한 80여개의 출판사들은 부스를 설치하고 자사의 책을 판매·홍보하는 단순한 형태에서 벗어나 관람객에게 그림책 컬러링과 모빌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을 제공해 어린이와 함께 행사장을 찾은 가족단



추석 앞두고 요동치는 밥상 물가 추석울 앞두고 요동치는 밥상 물가에 정부도 소비자도 고민이 깊다. 지난 1일 통계청이 발표한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8월 소비자물가는 1년 전보다 2.6% 상승했다. 사진은 이날 오후 어느 대형마트에서 한 시민이 장을 보는 모습.

위 관객들을 만족시켰다. 또, 참여 출판사가 초청한 작가들의 강연회와 사인회, 출판사 대표들이 참여하는 기획프로그램 등도 풍성하게 마련돼 평소 작가들을 만나기 쉽지 않았던 독자들의 좋은 반응을 이끌어냈다.

특히, 그간 전주지역 유아 및 초등학생 대상으로 운영했던 독후활동대회의 경우 올해 대한민국 독서대전 행사 개최를 기점으로 전국단위 행사로 추진한 결과 지난해 참여한 2배 가까운 1,000여명의 아동들이 가족과 함께 참여하는 등 그 어느 해보다 행사 참여 열기가 뜨거웠다.

한국전통문화전당 공연장에서는 고은 시인 기초강연과 박용현 작가 강

연 등 2박3일 동안 알찬 인문사회학 강연이 쉬지 않고 이어졌다. 또, 그동안 무대에서만 만났던 작가들을 커피 한잔 함께 나눌 수 있는 소규모 공간에서 만나볼 수 있었던 시인·작가와 의 수다, 가을 공감 낭독 공간 작은 북콘서트 등도 독자와 작가들이 일대일로 대면하여 호흡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

한옥마을을 관광하면서 독서대전 강연프로그램에도 함께 참여한 관광객들도 눈에 띄었다.

이와 함께, 무인으로 운영되는 두권책방, 그림책만 판매하는 책방 같이 등 전주지역의 특색 있는 서점 7곳과의 협업을 통해 진행한 동네방네 구

석구석으로 떠나는 책방여행 스탬프투어 등 참신한 프로그램에도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또, 한국도서관협회와 함께 진행한 '책 오래 읽기 대회'의 경우 참가자 100명 모집이 접수 마감된 뒤에도 정원을 늘려달라는 전화가 빗발치기도 했다.

이밖에, '한권의 책 마음에 달다'를 주제로 공예품 전시관에서 진행된 '한국의 꽃심, 전주가 권하는 책과 글', '명사가 권하는 한권의 책', '한 단어, 한 문장, 한권의 책이 그대에게 닿기까지', '문학의 분향 전라북도'의 4가지 컨셉의 기획·전시 분야에도 관람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김민근 기자

어린이 자전거 안전운전면허증 발급

전주시, 초등 3~6학년 대상 면허시험 운영

전주시가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안전한 자전거 이용문화 정착을 위해 시험을 통과한 어린이에 한해 '자전거 안전운전면허증'을 발급해줄기로 했다.

시는 초등학교 3~6학년 어린이를 대상으로 어린이 자전거 안전운전면허시험을 운영한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이는 자전거에 가장 관심이 높고 활발하게 타기 시작하는 시기인 초등학교 고학년 어린이들에게 자전거 안전운전면허증을 취득하게 함으로써 어릴 때부터 올바른 자전거 이용습관을 길러주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시험은 자전거를 탈 줄 아는 어린이 중 자전거 안전교육을 이수하고, 코스주행시험에 합격할 경우 자전거 안전운전면허증을 발급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시는 매일 둘째·넷째 주 주요 일일청 학교를 찾아가 시험을 운영할 계획이다.

전주시 시민교통본부 관계자는 "자전거타기를 생활화하고 안전하게 이용하는 습관은 어릴 때부터 몸에 베이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자전거 안전운전면허증을 취득하게 함으로써 교통수단으로서 자전거에 대한 관심을 높여주는 자전거 이용의식을 심어주는데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민근 기자

9월 '불법무기 자진 신고기간' 운영

전북경찰청은 4월(1차)에 이어 각종 불법무기류에 의한 테러 및 범죄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고, 총기안전에 대한 도민 생활의 편익을 도모하고 사회적 평온함을 확보하기 위해 9월 1일부터 한 달간 불법무기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자진신고 대상은 총기류, 화약류, 도검 등 무기류 일체로 신고관서는 모든 경찰관서와 신고소가 설치된 군부대이다.

신고방법은 본인이 직접 신고하거나 대리인을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자의 편익을 위해 익명, 구두, 전화, 우편신고 등 어떤 방법으로든 할 수 있다.

이번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내에 자진 신고한 도민에 대해서는 형사책임과 행정책임이 원칙적으로 면

제되며 본인이 소지를 희망하는 경우 결격사유 등의 절차를 거쳐 허가해 줄 방침이다.

경찰관계자는 "총기 사고로부터 위해요소 차단 및 사회 불안 요인을 제거하고 도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불법무기 자진 신고기간을 운영하게 됐다"며 "불법총기 소지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불이익이 없도록 적극협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자진신고기간이 종료된 후 불법소지자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자진신고 기간 내 신고하지 않을시 불법소지자는 총포, 도검,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게 된다.

/이상민 기자

완산삼천지구대, 몰카 점검활동

완산경찰서 삼천지구대는 1일 성범죄 예방을 위해 관내 대형 목욕시설 및 공중화장실을 대상으로 탐지장비를 활용한 몰래카메라 설치여부 점검활동을 실시했다.

이날 점검활동은 몰래카메라 설치여부 점검 및 시설에 대한 방범진단도 병행해 진행했다.

이호봉 삼천지구대장은 "불법촬영 범죄의 경우 죄의식 없이 성행하고 있다"며 "불법촬영 심각성을 홍보하고 유관기관과 협조해 다중이용시설 개선 등 범죄예방 활동을 지속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상민 기자

하반기 스쿨존 '어린이안전지킴이' 사업 추진

전주시, 100여명 참여 겨울방학 전까지 41개 초등학교 주변 통학로에서 활동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전주시가 어린이가 안전하고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는 도시환경을 만들기 위해 하반기 스쿨존 어린이 안전지킴이 사업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이 사업에는 녹색어머니와 교통관련 자원봉사단체 회원 등 100여명이 참여하며, 올 겨울방학 전까지 전주시역 41개 초등학교 주변 통학로에서 교통안전지도 등 안전지킴이 활동에 돌입하게 된다.

하반기 스쿨존 안전지킴이 사업 참여자들은 이날 전주시청 강당에서 신지현 경희대 평생교육원 교수(교육학 박사)를 초청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어린이 안전교육을 받았다.

이와 함께, 무인으로 운영되는 두권책방, 그림책만 판매하는 책방 같이 등 전주지역의 특색 있는 서점 7곳과의 협업을 통해 진행한 동네방네 구

에서 교통안전지도를 지속 추진하는 것은 각종 교통사고 통계에서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율이 하교시간대에 가장 높았기 때문이다.

앞서, 시는 올해 2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초등학교 주변 안전 취약지역 교통지도 및 통학로 순찰, 보행이 어려운 장애우 보행도우미 활동 등 스쿨존 안전지킴이 사업을 추진해 왔다. /김민근 기자

여자화장실에 몰카 설치한 30대 덜미

여자화장실에 몰카를 설치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1일 전주 완산경찰서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이모(3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8월 30일 오후 1시경 평화동의 한 상가 여자화장실에 빈과자 상자를 이용해 자신의 휴대폰을

몰래 숨겨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의 범행은 화장실을 이용하려던 여성이 휴대폰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피의자를 특정하고 검거했다. 경찰조사에서 이씨는 "호기심이 생겨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이상민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우리동네 무인주차장 어디에 있을까?

주차하고 구경하고 무인주차장에 주차하면 시간도 절약되고 편리합니다.



[전주시 무인주차장 안내]

- 서부신시가지 도청옆**
전주시 완산구 흥산북로 75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서부신시가지 농협중앙회 부근**
전주시 완산구 흥산북로 53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서부신시가지 다은병원 부근**
전주시 완산구 흥산2길 5-12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서부신시가지 KB은행 부근**
전주시 완산구 흥산1길 4-13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노송천 주차장**
전주시 노송여울2길 108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덕진광장 주차장**
전주시 덕진구 덕진광장로 3 (239-2562)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실내체육관 주차장**
전주시 덕진구 권삼덕로 308 (251-1264) (연중무휴) 4,000원 기본(30분):500원, 추가(15분):250원

